



별별신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창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별별신문 6호 발행일자: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발행인: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팀(숨, 용, 바람, 달래, 강)

좋은 쉼터는 없다

점 추워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언니들이 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 기존에 지원해 오던 쉼터는 정말 답답하고 불편하기만 한 곳 인걸까? 오해도 많고 말도 많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쉼터에 대해 알아보자.

쉼터는 다.

쉼터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업주, 삼촌에게 건너들은 이야기, 가게를 그만둔 후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했다는 친구에게 들은 쉼터는 어쩔 수 없이 겨우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되어 지내야 하는 곳인 것 같다. ‘감금’, ‘통제’같은 단어가 연상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종종 기사로 나오면서 쉼터는 여간해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부산 서구의 한 탈성매매 청소년 쉼터에서 A(15)양이 4m 높이의 건물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A양은 쉼터에서 지내는 1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 밖에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한 것이다.

A양은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센터를 찾았지만, 범죄자 취급하듯 24시간 내내 출입문에 철제 셔터가 내려져서 있어 바깥에 한 번도 나갈 수 없었다” 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입구는 24시간 공익요원의 보조아래 출입이 통제되고, 휴대전화는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다며 아예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

또, 전화는 하루에 2번, 인터넷 사용도 하루 15분만 허용돼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창살없는 감옥" 청소년 탈성매매 센터 탈출사고 잇따라 [부산CBS]2011년 10월 25일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는 전국적으로 40개소(일반 25개소, 청소년 14개소, 외국인 1개소)가 있다. 이렇게 많다면 많은 수의 쉼터를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정작 살기 싫은 곳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면 없애는 것이 낫고, 그 지원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을 텐데, 쉼터는 지속되는 것일까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 경험이 만든 약속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는 언니들이 당면한 법률문제와 의료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행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지지들이 이루어진다면, 쉼터에서의 생활은 일상생활이다. 같이 자고 밥 먹고, 부대끼면서 서로의 현재와 과거경험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생생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지지들이 오고 간다.

쉼터 관계자는 이것을 가장 큰 쉼터의 기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할 때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속내와 사정들이 나만의 아픔이나 역사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저 사람도 겪었구나 하는 동일함이 주는 안도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게는 4~5명, 많게는 20여명 가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소생활로 인해 불규칙적 이었던 생활패턴을 조정하기 위해 아침에 다같이 밥상에 모여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는 꼭 쉼터로 들어와야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허락을 받고, 소등시간을 지켜 잠을 자야 하는 하루 일과를 당장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각각의 쉼터가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입소지침서’는 소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행동반경이나 시간, 공간을 제약하면서 여성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입소지침서’나 쉼터의 ‘암묵적인 규칙’들이 단순히 여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쉼터는 외부에 전혀 주소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쉼터도 마찬가지인데 폭력가해자가 주소지나 생활자의 행동반경을 파악하여 위협과 폭력을 행한 사례가 있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생활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주가 쉼터 유선전화로 택시기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여성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면서 찾으러 간 여성을 납치했던 일이 있었고, 쉼터에는 기소중지와 벌금미납 등의 해결되지 못한 법률문제를 가진 생활자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외부인의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규칙들을 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여성을 통제하고 답답하게 하는 규칙들이지만 쉼터의 생활경험과 사례를 통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들이 하

나 돌씩 만들어져 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부규정인 입소지침이 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지침들도 세월과 사람이 변해가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가며 변경되어 가고 있다. 쉼터는 늘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쉼터 안팎의 사연

쉼터는 시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직업훈련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독립계획을 하나하나 이룰 수도 있는데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의 쉼터도 아쉬운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노출된 트랜스젠더는 간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쉼터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자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데 외형이 남성인 사람이 같이 화장실과 욕실,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와 법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할 쉼터에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드러내면 쉼터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거나, 커밍아웃(성정체성을 스스로 밝히는 것)후에 미묘한 차별을 감수하며 지내는 것을 선택한다.

쉼터에서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장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라도 삶의 경로를 전환하여 다시 계획하고 진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시대도,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고 언제나 해오던 대로만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쉼터에서도 하고 있다. 개인의 성향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것이 또 존중되는 방식을 찾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떠한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대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ㄱ 쉼터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쉼터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은 쉼터에 대한 오해이다. 물론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동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규율들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 또한 함께 살아가면서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만들어진 서로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 효율적인 쉼터운영과 통제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야 한다. 앞서 기사처럼 생활자를 통제대상으로만 취급하거나 통제방식의 손쉬움을 위해 생활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쉼터 같은 곳에 대한 날선 감시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주거와 보호망이 필요한 여성이 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삶의 다른 계획을 세워볼 공간으로 쉼터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공통적인 가치는 여성의 안전과 권리 확보, 주체적인 삶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난 언니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것 뿐이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ㄱ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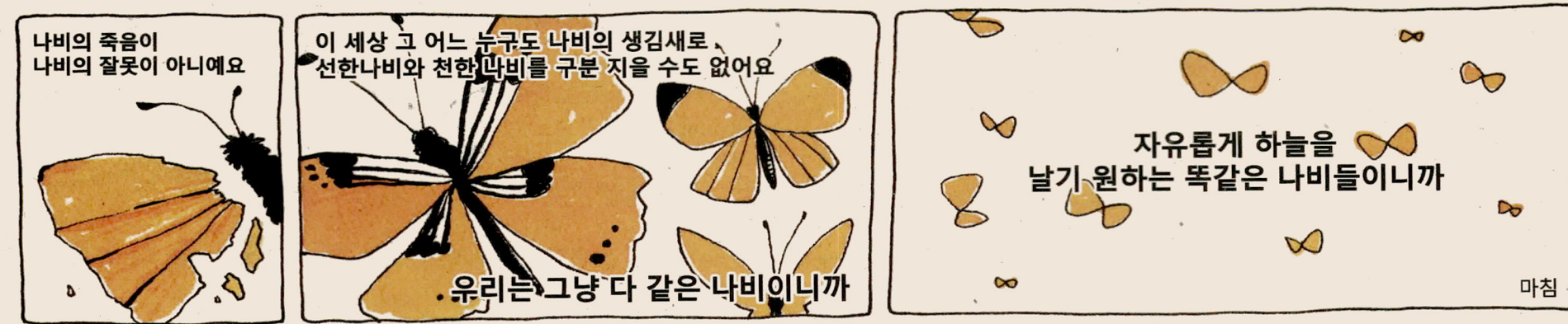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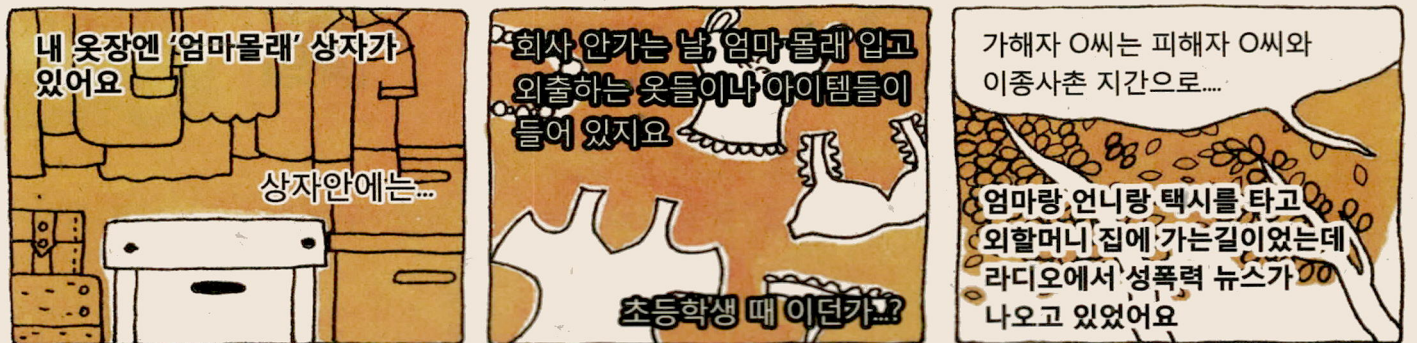


좋은 쉼터는 없다.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불편함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언니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의 응원 속에서 언니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발현해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언니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녹여내어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란다.

[바람, 강]

나비들에게

글/그림 나리



성폭력 범죄 신고죄 폐지 추진
 신고죄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신고죄 폐지를 위한 움직임
 -19대 국회 여야에서 성폭력 범죄 신고죄 전면 폐지 추진
 -판사 학계도 성범죄 신고죄 폐지에 의견 일치
신고죄 조항, 무엇이 문제?
 신고죄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내외에 불과하며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도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이 고소취하 협박을 경험하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겪고 넘어간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력 피해, 혼자서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하세요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숨]

요망한 망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거침없는 망상과 탄죽걸기!



언니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홍업소에 안내문 부착

2012년 8월 2일부터 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유홍업소에서는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내문은 400mm×300mm이상 직사각형 크기의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전고딕체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홍업소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나 고리 사채 등으로 인한 자살사태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킹·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전국 유홍업소에 안내문 부착 [문화일보]
2012년 8월 1일 제8면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 **성매매피해상담소**
(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
법률서비스 제공)
※ ○○상담소 : 02-000-0000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24시간 전국)

[유홍업소 안내문 예시]

우리 가게에도 붙었나

안내문의 크기와 폰트 칼라 종류까지 지정해주는 이런 디테일함이 라니. 여가부 관계자는 업소 언니들이 정말로 그 ‘다양한 정부지원’을 몰라서 상담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룸, 단란, 맥양주집 등등 유홍업소라면 요 요상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이 바뀐걸 알았든 몰랐든 사장 입장에서 는 참으로 껄적지근한 것이 달갑지 않은 놈이렸다.

그나저나, 업주가 직접 선불 내려주던 시절은 지났고, 급전은 사채 일수 파이낸스 등이 대세가 되어버린지라 이 빚이 선불금인지 뭔지 기냥 내가 갚다 쓴 빚인지 애매모호해져버린 상황을 여가부는 알랑가 몰라...

하지만 경찰도 나 몰라라 하고 비빌 언덕 없이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 도움을 받을 전화번호 하나쯤은 외워두는 게 어떨까? 쉽기도 하고 입에도 짹짹 붙는 번호 1366!

[용]

고마담의 고민살롱

To, 고마담

며칠 전에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에 다녀왔어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재 섹스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였어요. 섹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시간 이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오직 나무토막의 이미지만이 맴도는 거예요. 애인의 성기가 나무토막같이 느껴지고 전 아무런 흥분과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하면 애인이 절 싫어할 것 같아서, 저를 떠날 것만 같아서 사랑 받고 싶어서 흥분하는 척 하고만 있어요. 워크숍에 온 다른 여자들은 신나게 자신의 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왜 난 섹스할때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흥분되는지도 모르고, 왜 애인한테 맞추지 않으면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느니 너무 불안해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불감이

To, 불감이

성관계는 관계에서 친밀감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어느 한쪽만 만족하고 어느 한쪽은 맞춰야 하는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쌓이기 어렵지요.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다.

성관계를 할 때 먼저 나는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만질 때 쾌락을 느끼는지,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 손을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을 만질 때 찌릿찌릿 하는지 그 감촉을 느껴보는 겁니다. 천천히 샤워를 할 때 거품으로 몸 전체를 마사지를 하듯이 기분 좋은 탐색을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밝히는 사람으로 폄하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이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싫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자.

싫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추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고 맙니다. 성관계를 할 때 싫을 때는 싫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상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임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을 내가 알아차렸다면 중단하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극되지 않은 부위를 계속 자극할 때에도 부드럽게 말투로 내가 자극되는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담

심리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공공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 모두~~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심리상담가를 연결해드립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두루 살리고 살피는 정보

한 부모 가정 지원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 (소득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연령기준).

-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이 122만 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 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년(재학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가족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가족상담, 취업·창업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미혼모·부자 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 중이다.

-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소)
-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

(시설 보호)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 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용]

부당한 불심검문, 정당한 거부가 가능해요!

부당한 불심검문 관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policewatch.kr@gmail.com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6-262(112-880)
인권단체연석회의 불심검문 담당자

쫄·지·마·불심검문
법·대·로·불심검문
내·살·길·을·박·거·마·~!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강제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 3조1항,7항)

불심검문,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 조항입니다.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경직법 3조7항)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시, 경찰은 신분 및 목적, 이유,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4항)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역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은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경직법 3조2항,4항,5항,6항)

불심검문, 질문만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거부합니다.

불심검문은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요구와 신원조회는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직법 3조1항,3항)

ITIPI 불심검문을 겪을 때, 경찰의 신분을 기억 기록해 둡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별별신문을 이용하세요~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소식, 성매매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거나 부조리한 사건들을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 사연 보낼 곳

*이메일 : eloom2003@naver.com

*휴대폰 : 010-8230-627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 담당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소나 직접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별별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